

가장 좋은 기획은 아이와 함께 하는 거죠

편집자 하루 따라잡기

우리고육
김용란

올해로 4년째다. 우리교육 김용란 씨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시작한 동화공부에 폭 빠져 막연하게 동화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화책을 만드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라는 생각에 편집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

출근 시간을 묻자 그는 먼저 동료들에게 미안한 내색을 보인다. 부천에서 사무실이 있는 서교동까지는 지하철로 한 시간이 걸리는데 막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 가는 큰 애를 배웅하고 오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직장을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김씨다. 이제는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편집자로서의 하루를 시작한다.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김씨는 수첩과 펜을 꺼내 그날 일정을 적는다. 누구와 약속이 있고 오늘 끝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적으면 저녁에는 그 목록에 완결표시가 되어야 한다. 사회는 타인과의 약속을 매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나와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게 김씨의 생각이다. 검토해야 할 원고와 읽고 싶은 잡지들을 읽다보면 한 시간은 금방이다.

요새는 준비하고 있는 책이 출간을 앞두고 있어 하루하루가 바쁘다. 인물 이야기 시리즈 중 하나로 이소선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역사교과서처럼 쉽고 재미있게 담은 책이다. 그동안 김씨는 필자 선정부터 원고방향을 잡기 위한 취재, 인물 인터뷰까지 발품을 들여 책 기획작업을 함께 했다. 2002년부터 준비해 온 작업이 현재는 마무리 단계인 채색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각에 민감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화를 배운 경험이 있는 김씨는 직접 보면서 감각을 익히기 위해 홍대에 있는 화실을 자주 찾는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는 주로 필자들을 만나 토크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친분을 쌓는다. 전체 회의는 월요일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지만 팀원들끼리 수시로 의견을 나눈다. 금요일에는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아동문학 모임이 있다. 이론공부를 통해 참고가 될 만한 책을 접하는 것은 책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6시에 퇴근하고부터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집 근처 큰 서점을 자주 찾아 좋다고 생각되는 책을 권해 주기도 하고, 다음 작업 준비를 위해 나온 책들을 검토한다. 야근을 하기보다는 원고나 기안은 집에 가져가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의 융통성을 위해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

책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이 읽을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옆에서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획이다. 내 아이가 소중한듯,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아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게 하는 책을 만들어주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